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4일 월요일 음 4월 13일 (5물)

기상정보

흐리고 가끔 비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8°C, 낮 최고기온은 22-25°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clouds, and wind.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 높음

Table with 3 columns: 주간예보, 구름 많음, 18/27°C, 호리고 비, 17/26°C

Table with 4 columns: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중국 채굴 정조준... 비트코인 운명은?

국무원 '채굴 타격' 공식화

중국이 비트코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국은 그간 자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못 하게 했는데 비트코인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밤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거래 금지보다는 채굴 금지에 관한 언급이다.

중앙정부인 국무원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제한 원칙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중국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장.

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의 대형 채굴장들은 사실상 세계 비트코인 거래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 퇴출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생태계에 비교적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아울러 이번 국무원의 '비트코인 타격' 언급은 채굴뿐만 아니라 거래에 관해서도 새로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fax numbers.

백록담



문 미 숙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지난해 7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집값이 11%(아파트값은 14%) 올랐다고 발언해 야당으로부터 "어느 나라 장관이나"는 소리를 들었다.

당시 김 장관이 11% 인상의 근거로 든 것은 정부 승인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매주·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다.

시장이 외면하는 못믿을 농업통계

표하고 있다. 이들 통계마다 조사방식과 표본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이 적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되자 올해 조사 표본규모를 늘린다는 발표도 있었다.

통계는 민간에서도 적잖이 생산되고 인용되기도 하는데, 국가 통계기관인 통계청이 내놓은 숫자라면 높은 신뢰도를 담보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바로 올해산 제주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었다. 농가와 계약재배한 지역농협의 마늘수매가 결정을 얼마 앞둔 것은 정부 승인 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매주·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다.

1795ha(일마늘 195ha 포함)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15.0%, 7.6% 감소할 것으로 집계했다.

제주도와 통계청의 면적 차이는 모든 채소류가 마찬가지였다. 월동무는 제주도가 2018년 5232ha, 2019년 4978ha로 밝혔는데 통계청은 각각 7564ha, 5881ha로 집계해 많게는 2000ha 이상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이 표본조사하면서 품목별로 주산지과 비주산지가 뚜렷한 지역별로 가중치를 따로 두지 않는 집계 방식에서 오는 편차에 납득이 안간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다.

이처럼 편차가 심각한 채소류 통계에 제주도는 드론을 20-30m 높이의 낮은 고도로 띄워 촬영한 장소의 채소류 품목과 면적을 인식토록 하는 기반을 구축중으로, 내년부터 드론으로 보다 정확한 재배면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통계청이 국내 표본기구를 대상으로 각종 통계조사를 할 때마다 얘기하는 조사 목적은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이다. 곧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고, 유통시장에 커다란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국가 통계품질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열린마당

생태계 위한 첫걸음 '업사이클링'



변 정 미 제주시 오리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장

우리가 흔히 쓰고 버리는 페트병이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 등으로 재활용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버려진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이 뒤섞이고, 이물질 등이 있어 고품질로 재생되는 비율이 낮으며,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연간 페트병 7만8000t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예방의 파수꾼 '주택용소방시설'



문 경 진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장

분리배출만 잘해도 연간 2만8000t에서 10만t의 고품질 원료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별관람으로 운영할 업사이클링 관람을 하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지쳐있는 몸과 답답한 마음을 달래는 힐링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집'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고 정의된다.

소방청의 화재 발생 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절반 가까이 주택에서 발생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주택 및 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에 소방관서는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화재 취약계층에 꾸준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설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미리 준비돼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Advertisement for Jeju Hanra Park featuring various citrus products like Red Tangerine, Honey Tangerine, and others.

Advertisement for Jeju Hanra Park featuring citrus products like Winter Prince, Honey Tangerine, and others.

Advertisement for Jeju Hanra Park featuring citrus products like Asahi 4, 5 year old, and others.

Advertisement for Jeju Hanra Park featuring citrus products like Domestic Development Excellent [New Product] Jeju Hanra Park.